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해설

<2014. 11. 23(일), 오후 14:00 ~ 16:00>

## 1. 출제 의도

한국의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고사(동양어대학, 일본어대학, 글로벌캠퍼스 해당모집단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첫째, 한국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국의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문제는 4개가 출제되는데 I 과 II로 이루어진다. I 은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문제1 과 문제2가 주어진다. 문제1은 200자 내외로 자료1과 자료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1은 인터넷/디지털의 발전과 보편화/효용성을 중시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자료2는 학생들에게 기계/디지털을 통한 편의성보다는 인간성, 사회성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2는 자료2에 근거하여 자료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는 것이다. 곧 자녀/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인간성,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매체들이 가지는 효용성의 한계를 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자료를 각각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주어진 발문에 따라 상관성을 적절하게 논해야 한다. 자료2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유례 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II는 3개의 자료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문제3과 문제4가 주어진다. 자료3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분포를 OECD 기준 계층과 체감 계층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료4는 조음위치에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료5는 한용운의 시작품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의 속성 상 성취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는 내용이다.

문제3은 자료3과 자료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자료3의 OECD 기준을 객관적 지표라고 할 때 그와 비교한 체감 계층에는 다소 주관적 요소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4에서도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서 인지한 입모양과 스피커에서 실제로 나오는 음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조합하여 다르게 발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두 개의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4는 자료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3의 현상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자료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인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3에서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ECD 기준 대비 주관적인 판단인 체감 계층에서 긍정/만족하는 분류군을 찾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상의 4문제는 각각 다음의 의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I 의 문제1과 문제2는 요지 요약, 자료에 제시된 특정한 논점에서 다른 자료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으로 요약 능력과 제한적인 논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II 의 문제3과 문제4는 두 이질적인 자료를 특정한 논점에서 비교·분석하기, 제시된 몇 개의 요건들을 충족하며 적용하고 추론하기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적용과 추론 능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2. 해설

### 가.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다양한 저작물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 <자료 1>

출처: Virginia Heffernan, *New York Times*(2011. 08. 07)을 바탕으로 작성

#### <자료 2>

출처: Neil Postman, *Virtual Students, Digital Classman*을 바탕으로 작성

#### <자료 3>

출처: oo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 <자료 4>

출처: 최양규, 「조음위치에 관한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

#### <자료 5>

출처: 한용운, 「만족」

### 나. 각 자료 요지

#### <자료 1>

<자료 1>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 <자료 2>

<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 <자료 3>

<자료 3>은 소득기준 OECD 계층과 설문에서 나타난 체감 계층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소득층의 0.8%만이 스스로 고소득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22.7%와 7.4%는 각각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 공식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OECD 기준 중산층

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며,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여긴다. 반면, OECD 기준 저소득층 7.3%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긴다. <자료 3>은 객관적인 소득분류와 주관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각 경제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OECD는 소득수준만으로 계층을 정의한 반면, 국민들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 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료 4>**

언어사용자는 말소리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같은 시각 정보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는 바로 이와 같은 말소리 지각의 특성을 활용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말소리 지각의 주관적 해석을 다루었다.

**<자료 5>**

자료 5는 한용운의 시작품인「만족」인데, 시적 화자는 세상과 인생에 만족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부단히 추구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높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의 결론은 만족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이나 성인의 주관적인 것이거나 약자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넷 째 연에서는 (주관적인 또는 깨우침으로서의)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

**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 연구를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 라. 형식적 측면

- ① Part.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표나 그래프 자료에 대해 적용, 추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